



안종신 편집위원  
(주)도화구조 소장 / dopian01@do-hwa.co.kr

## 용 오 림

바다에서 하늘로 오르는 물기둥인 '용오름' 현상이 최근 울릉도를 비롯해 올 들어 2곳에서 관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강원도 강릉시 경포대 앞바다에서 9월 2일 오후 용오름 현상이 발생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강릉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0분부터 4시 10분까지 경포대 앞 동해 바다에서 직경 20여 m 높이 500여m의 용오름현상이 관측됐다. 동해에서 용오름현상이 관측되기는 지난 88년 이후 13년만으로 올 들어서는 지난 8월 26일 울릉도 인근 죽도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데 이어 두 번째다. 한국판 토네이도인 이 용오름은 어떻게 발생하고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삼국사기에 따르면 우리 조상들은 기원전 53년과 서기 875년 경 문왕 15년에 용오름현상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용오름현상이란 바다에서 발생하는 지름이 수십에서 수백 미터에 이르는 강력한 저기압성 소용돌이를 말하는 것으로 육지에서는 흔히 토네이도로 더 유명하다. 바닷물이 물기둥을 이뤄 수백 미터까지 치솟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보면 가히 '용' 처럼 보이거나 수직보다 수평적인 힘이 강하다. 용오름현상은 보통 연 평균기온이 섭씨 10~20도인 지역에서 적란운이 생길 때 많이 발생한다.

## 이코노미 클래스 신드롬 (Economy Class syndrome)

이코노미 클래스 신드롬이란 항공기의 비좁은 일반석에서 움직이지 않고 7~8시간이상 앉아 있는 동안 다리나 골반 정맥에서 혈전(血栓 : 혈관 안에서 피가 엉기어 굳은 덩어리)이 형성된 후 떨어져 나가 폐 혈류를 막음으로써 호흡곤란과 심폐기능 이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한 영국 여성이 비행기의 이코노미 클래스(3 등석)에 앉아 린

## 용 오 림

### 이코노미 클래스 신드롬

### (Economy Class Syndrome)

### 시습(SYSOP : SYStem OPerator)

던에서 호주 시드니까지 장거리 비행을 한 후 사망하여 이러한 명성이 붙어졌다.유발 요인은 항공기내의 압축공기가 혈중 산소 농도를 떨어 뜨려 혈액 응고의 위험을 촉진 하는 것이며, 비행 고도가 높을 수록, 백인, 고령자, 비만하거나 기내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 등에 더 잘 발생한다. 사실, 이것으로 인해 죽음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좁은 좌석에 앉아 오랜 시간을 견디다 보면 다리가 못 걷거나 다리 정맥 속 피의 흐름이 늦어져 혈액이 엉기는 폐색전증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 시습 (sYsoP : sYstem oPerator)

같은 취미를 가지고 모임을 갖거나 활동하는 사람들의 집합을 동호회라고 하는데, 일상생활처럼 온라인 공간에도 이 같은 동호회가 수없이 많다. PC통신의 동호회에서는 회원들 사이에 궁금한 것에 대해 묻고 답하는 등 필요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거나 관심있는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 통신공간에서 벗어나 회원들이 보낸 게시물의 목록과 함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전자게시판(BBS: Bulletin Board System)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 때 기간이 지났거나 동호회의 목적에 맞지 않는 내용을 신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게시물을 관리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바로 이러한 게시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시습이라고 한다.

인터넷과 네트워크의 전문가들이 판치는 네트워크 유저 동호회에서 시습이 되려면 흔히들 전문가 수준은 되어야 한다. 처음에는 모든 컴퓨터 분야가 다 그렇듯이 인터넷과 네트워크 분야에도 여지없이 남성취미가 강력하였다. 그런 탓에 국내 PC통신의 컴퓨터 관련 동호회의 대부분이 남성이고, 여성 회원들이어야 고작 10퍼센트 안팎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성비가 서서히 평균화되고 있는 추세다. **KSEA**